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7년 12월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Vol. 20 No. 2, 58-66, December, 2017 ISSN 1229-263X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난희[1] · 유소연[2]

전주기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1],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2]

Influence of Communication Style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Lee, Nan Hee[1] · Yoo, So Yeon[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eonju Kijeon College, Jeonju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tyle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80 nursing students in a university in Gyeongsa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3.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for college adaptation with a 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such as leveling stance (r=.36, $p<.001$) and stress coping (r=.39, $p<.001$). With more using of functional communication and with higher level of active coping of stress coping, nursing students appeared to more successfully adaptation to college life. It was also found that an explanatory power for college adaptation of these factors was 29.8% (F=20.01, $p<.001$).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improv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ctive coping of stress coping of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enhance the adaptation process to college life.

Key Words: College adaptation, Communication styles,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의 특성 상 다양한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기간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생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학업 성취 뿐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에 대응해 나가며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Choi & Lee, 2012). 대학생활에서 이러한 과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에 이르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이와 같은 통계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한 후 학생들은 고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

주요어: 대학생활 적응, 의사소통 유형,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대처

Corresponding author: Yoo, So Yeon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50 Gamasil-gil, Hayang-eup, Gyeongsan 38428, Korea.
Tel: +82-53-600-5666, Fax: +82-53-600-5679, E-mail: syyoo@kiu.kr

투고일: 2017년 9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10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31일

ⓒ 2017 The Academic Society Parent-Child Health

른 여러 차원의 새로운 학업 및 경험과 함께 확장된 대인관계를 형성해감에 따라 높은 수준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Cho, 2012), 대인관계, 이성문제, 학업, 진로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Kim & Jang, 2012).

대학생은 학업공부와 과제물, 불투명한 장래 및 진로, 대인관계와 이성문제, 경제문제, 외모, 어학성적, 학과 성적 및 학점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된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모든 사람이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의 문제를 겪지는 않으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지므로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데 있어 작용하는 개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타내는 대응 행동을 스트레스 대처행동(Lazarus & Folkman, 1984)이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문화적, 의사소통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Jang, 2010). 특히 스트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되고 내적으로 발현된다. 즉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적응을 위한 관계의 개선 또는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ricson & Gardner, 2009). 선행연구결과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취업과 승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ricson & Gardner, 2009; Lee, Choi, & Whang, 2009; Song & Ahn, 2013; Yuk, 2013). 또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임과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Jang, 2010).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자신의 고유한 간호 전문직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 시킬 수 있게 된다(Min, 2006).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른 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 및 실습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이 스스로의 능력, 역할, 책임, 사명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게 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적응 정도를 낮출 수 있다(Han et al., 200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 스트레스, 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정감 등과 함께 학년, 인지된 학교성적, 인지된 부모님의 경제력 등이 규명되었으나(Choi, Park, & Kim, 2015; Jung, 2016; Oh, J., 2017; Yun & Min, 2014), 스트레스 대처와 함께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관련 요인으로 알려진 의사소통 변인을 포함하여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여 이들 변인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소재 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180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보통정도 수준인 .15, 검정력 .95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29명으로 산출된 것을 근거로 하여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표본수를 180명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유형

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Satir (cited in Lee, S., 1998)가 제작한 것을 Lee (1998)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회유형 17문항, 비난형 13문항, 초이성형 11문항, 산만형 13문항, 일치형 19문항의 5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Satir (cited in Lee et al, 2014)는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러한 유형을 일치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대로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하게 반응하게 되는 상황으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각 사람의 의사소통유형은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고, 각각을 t 점수로 환산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점수의 유형을 그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였다. 번안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회유형 .77, 비난형 .74, 초이성형 .56, 산만형 .72, 일치형 .79였으며(Lee, 1998).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회유형 .73, 비난형 .73, 초이성형 .56, 산만형 .72, 일치형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0, 기능적 의사소통 .70이었으며 전체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Folkman과 Lazarus (cited in Park J., 199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에 기초하여 Kim (cited in Park, J., 1995)이 요인 분석하여 선택 개발한 척도를 Park (1995)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은 문제 지향적 대처방식 6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6문항, 정서 중심 대처방식 6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문제 지향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본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에 대해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저 24점에서 최고 96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Park (1995)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적극적 대처 .73, 소극적 대처 .50, 전체 .75였다.

3) 대학생활 적응

이 척도는 대학생활에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ky (cited in Kwon, H. J., 2007)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Kwon (2007)이 Likert식의 5점 척도로 재구성한 67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하위영역별 문항은 학업 적응, 사회 적응, 개인-정서 적응, 대학환경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중 53번 문항은 4개의 하위척도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16번 문항은 사회적응 척도, 대학환경적응 척도에 중복하여 적용된다. Kwon (2007)의 연구에서의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3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가 응답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참여의 자율성 및 익명성 보장, 설문지 응답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과 참여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여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문 조사시간은 1인당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SNS를 통해 조사연구가 시행됨을 미리 알리고, 학년 별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연구보조원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수거하여 대상자들의 설문응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통제하는 노력을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변수인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에 대하여 왜도와 첨도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유형

연구대상자는 모두 180명으로 평균 나이 20.6±2.3세였고, 성별은 여학생이 148명(82.2%), 남학생이 32명(17.8%)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게 구성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0명(27.8%)로 동일하였으며, 4학년이 30명(16.7%)이었다. 부모의 경제력 수준은 중위권 이상이 109명(6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돈은 평균 30.1±13.5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학점은 3.5±0.4점으로 3.0 이상 4.0 미만이 130명(72.2%), 4.0 이상 20명(11.1%), 3.0 미만 30명(16.7%) 순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2.1점이었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은 회유형 39명(21.6%), 비난형 31명(17.2%), 초이성형 32명(17.8%), 산만형 35명(19.4%), 일치형 43명(23.9%)으로 일치형이 가장 많았으며, 2학년과 4학년에서 일치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Patterns of Students (*N*=18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Placating (n=39)	Blaming (n=31)	Super reasonable (n=32)	Irrelevant (n=35)	Leveling (n=43)
			n (%)	n (%)	n (%)	n (%)	n (%)
Age (year)		20.6±2.3					
Gender	Male	32 (17.8)	6 (18.8)	4 (12.5)	7 (21.9)	8 (25.0)	7 (21.9)
	Female	148 (82.2)	33 (22.3)	27 (18.2)	25 (16.9)	27 (18.2)	36 (24.3)
Year	1st	50 (27.8)	14 (28.0)	5 (10.0)	3 (6.0)	16 (32.0)	12 (24.0)
	2nd	50 (27.8)	12 (24.0)	4 (8.0)	13 (26.0)	7 (14.0)	14 (28.0)
	3rd	50 (27.8)	9 (18.0)	16 (32.0)	11 (22.0)	8 (16.0)	6 (12.0)
	4th	30 (16.7)	4 (13.3)	6 (20.0)	5 (16.7)	4 (13.3)	11 (36.7)
Financial status of parents	Good	37 (20.5)	9 (24.3)	7 (18.9)	6 (16.2)	7 (18.9)	8 (21.6)
	Fair	109 (60.6)	24 (22.0)	19 (17.4)	19 (17.4)	18 (16.5)	29 (25.6)
	Poor	34 (18.8)	6 (17.6)	5 (14.7)	7 (20.6)	10 (29.4)	6 (17.6)
Allowance		30.1±13.5					
Grade	<3.0	30 (16.7)	6 (20.0)	6 (20.0)	6 (20.0)	6 (20.0)	6 (20.0)
	3.0~<4.0	130 (72.2)	25 (19.2)	21 (16.2)	25 (19.2)	25 (19.2)	34 (26.2)
	≥4.0	20 (11.1)	8 (40.0)	4 (20.0)	1 (5.0)	4 (20.0)	3 (15.0)
		3.5±0.4					
Major satisfaction		6.0±2.1					

Table 2.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and College Adaptation (*N*=180)

Variables	Categories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style	Functional	50.0±10.0	16.4	77.1	-.26	0.32
	Dysfunctional	50.0±10.0	28.4	91.6	.72	1.60
Stress coping	Active coping	2.8±0.32	1.9	3.8	-.00	0.10
	Passive coping	2.8±0.26	2.3	3.6	.53	0.05
College adaptation		3.2±0.44	1.3	4.5	-.32	1.60

Table 3. Difference of Stress Coping and College Adaptation by Communication Style (*N*=180)

Variables	Functional (n=95)	Dysfunctional (n=85)	t
	M±SD	M±SD	
Stress coping	2.9±0.23	2.8±0.24	3.74***
Active coping	2.9±0.29	2.7±0.32	3.98***
Passive coping	2.9±0.26	2.8±0.25	2.25*
College adaptation	3.3±0.38	2.9±0.43	5.66***

*p < .05, ***p < .001.

표준편차는 t 값으로 환산한 점수로서 50±10점으로 동일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2.8±0.25점, 하위요인인 적극적 대처 2.8±0.32점, 소극적 대처 2.8±0.26점, 대학생활 적응은 205.5±28.3점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4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2).

3.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에서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스트레스 대처 점수는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이 2.9±2.3점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2.8±0.24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74, p <.001),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하부 영역 중 적극적 대처의 경우에도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이 2.9±0.29점,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룹 2.7±.32점으로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의 점수가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8, p <.001). 소극적 대처 역시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이 2.9±0.26점,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이 2.8±0.25점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t=2.25, p <.05). 대학생활 적응 또한 기능적 의사소통 그룹이 3.3±.38점으로 역기능적 의사소통 그룹 2.9±0.4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6, p <.001).

4.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스트레스 대처 전체(r=.46, p <.001),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r=.47, p <.001), 소극적 대처(r=.30, p <.001), 대학생활 적응(r=.36, p <.001)에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r=-.16, p <.05)와 대학 생활 적응(r=-.40, p <.001)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에 대처 전체와 적극적 대처(r=.89 p <.001), 소극적 대처(r=.83, p <.001)와 대학생활 적응(r=.39, p <.001)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소극적 대처(r=.47, p <.001) 및 대학 생활 적응(r=.40, p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소극적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r=.25, p <.01) 또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공차한계(tolerance)는 .77~.97로 >.01이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3~1.54로

10 미만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고, Durbin Watson 상관관계는 2.037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β값을 살펴본 결과, 기능적 의사소통 점수(β=.21, p<.01),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β=-.34, p<.001),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β=.21,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중회귀분석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0.01, p<.001), 영향력의 크기인 수정된 결정계수(Adj. R^2)값은 .298로 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적 의사소통,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세 변인이 함께 대학생활 적응을 29.8%설명하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유형 중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인 일치형은 2학년과 4학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학년에서 일치형이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교과과정 상 2학년 때 의사소통론 강의를 수강한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며, 4학년의 경우는 4년간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학습성과의 성취와 함께 의사소통 능력 역시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Jang (2010)은 의사소통 능력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드시 교육을 통해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훈련을 위해 1회성이 아닌 장기간의 교육시간이 요구된다고 한 Yuk (2015)의 연구를 비롯하여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Won & Shin, 2008; Lim & Park, 2013)을 고려할 때 간호학과 재학 기간 중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2학년과 4학년에서 일치형이 많았던 것에 비해 3학년 학생들에게서 비난형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간호학과 3학년 때 임상실습을 시작하며 학생들이 받는 새로운 스트레스와 임상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비난형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간호사의 무례함과 관련된 국내 연구(Hong, Kim, & Son, 2016)에서도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무례함을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to College (*N*=180)

Variables	Functional	Dysfunctional	Stress coping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College adaptation
	r (*p*)	r (*p*)	r (*p*)	r (*p*)	r (*p*)	r (*p*)
Functional	1					
Dysfunctional	-.09	1				
Stress coping	.46***	.08	1			
Active coping	.47***	-.16*	.89***	1		
Passive coping	.30***	-.06	.83***	.47***	1	
College adaptation	.36***	-.40***	.39***	.40***	.25**	1

*p<.05, **p<.01, ***p<.001.

Table 5. Effect of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on Adaptation to College (*N*=180)

Variables	b	SE	β	t	Tolerance	VIF
Functional	0.60	0.20	.21	2.99**	.77	1.29
Dysfunctional	-0.97	0.18	-.34	-5.40***	.97	1.03
Active coping	18.66	6.97	.21	2.68**	.65	1.54
Passive coping	7.95	7.83	.07	0.07	.77	1.30
R^2=.314, Adjust R^2=.298, F (df_1, df_2)=20.01 (4, 175), p<.001						

**p<.01, ***p<.001.

고, 무례함에는 직접적인 언어폭력이나 괴롭힘과 같은 가시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시하는 언행이나 표정,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말투나 눈빛 등의 비언어적, 비존중적 행동이 포함되므로 간호학과 3학년들이 임상 실습 시작과 함께 이와 같은 간호사의 무례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자신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을 위하여 이러한 면을 고려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임상 현장에서도 일치형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겪게 되는 무례함을 간호교육적 측면에서 간과하지 않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를 통해 규명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점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선행연구 Park과 Jung (2010)의 연구에서 2.42점, Park과 Lee (2011)의 연구에서 2.65점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경우 교과과정 상 교내 및 임상실습 등을 포함하여 많은 학업량과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양한 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는 하나의 대처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대응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때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Jang, 2010)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비교적 효율적인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3.2±0.44점으로 중간 이상의 적응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Eo (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 3.03점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Oh, Y. 연구(2017) 결과 3.36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선행연구들(Park & Lee, 2011; Yi & Kwak, 2016)이 보고한 수준과도 거의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선행연구결과 대부분 간호대학생들은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입학 이후 일반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외에 간호학과가 가지는 특수성, 즉 학과공부에 대한 부담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엄격한 교육과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 Lim, 2017; Park & Lee, 2011), 본 연구의 대상자들 역시 간호학과 학생들로서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스트레스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그룹이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높았으며, 대학생활 적응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라고 설명한 Kim과 Kang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Moon (2006)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Gil (2016)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그룹의 스트레스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낮으며 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는 여러 대응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때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그룹이 스트레스 대처 점수가 높다는 결과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그룹의 스트레스가 낮다는 Gil (2016)의 연구결과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il (2016)의 연구결과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전공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만족도는 대학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본 연구결과 기능적 의사소통 사용 그룹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적극적 대처로, 이는 적극적 대처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Lee와 Lim (2017)의 연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Park과 Lee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다양한 대처방식이 결정되므로 개인적 성향에 따른 대처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적극적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적극적 대처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그 원인 자체를 변화시켜 해결하려

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해 하려는 행동도 적극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자원을 찾아나서는 등의 대처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 당시부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연구대상자 및 변수의 확대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가 이루어진 해당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는 주요한 실증적 근거가 되리라고 본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였으나 의사소통은 상황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평가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기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유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요인에 따라 대상자에게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효율적 의사소통 증진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의 개발과 함께 관련 비교과 활동을 계획, 시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Cho, H. (2012).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program o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and stress coping method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1*(3), 407-421.

Choi, H. J., & Lee, 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Choi, S. O., Park, J. K., & Kim, S. H.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Ericson, P. M., & Gardner, J. W. (2009). Two longitudinal studie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its effects on college students' success. *Communication Quarterly, 40*, 127-137.

Gil, E. (2016).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atir's communication style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11*(2), 155-166.

Han, K. S., Park, Y. J., Kim, K. M., Oh, Y. J., Jin, J. H., & Kang, H. C. (2008).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1), 28-34.

Hong, Y., Kim, Y., & Son, H. (2016). Effect of nurses'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on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4), 323-333.

Jang, H. S. (2010). The differences of the college student'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and social-communication style. *Social Science Research, 26*(2), 1-19.

Jung, H. Y.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Kim, E. A., & Jang, K. S.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Report on the Social Survey*. Retrieved August, 2017, from http://www.kosis.kr/

Kwon, H. J. (2007).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ee, H. S., Choi, E. H., & Whang, M. Y. (2009).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flict resolution styles, and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2), 1-22.

Lee, J., & Eo, Y. (2013).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2), 125-134.

Lee, K. J., Go, S., Lee, S., Kim, G. H., Min, S. Y., Choe, Y. J., et al. (2014).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eoul: Shinkwang.

Lee, M., & Lim, S. (2017).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burnout,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521-534.

Lee, S. (1998). *Analysis of communication stance by psychological tendency*.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Lim, S. J., & Park, E. Y. (2013).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attern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fter 'Satir Communication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151-162.

Min, S. Y. (2006). Original articles: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09-419.

Moon, S. (2006). The prediction about the model of the university students' adaption to school life by data-mining analysi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8*(2), 247-267.

Oh, J.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Oh, Y. (2017).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07-317.

Park, J.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Park, J. A., & Lee, E. K.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Song, K. H., & Ahn, G. (2013). The effect of employee'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5*(2), 117-129.

Won, J. S., & Shin, H. S. (2008). The effect of small group based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competency of communication and the human relationship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2), 60-66.

Yi, J., & Kwak, H.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527-537.

Yuk, H. (2015). The effect of Satir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nformity of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12*(1), 1-23.

Yun, S. Y., & Min, S. H.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395-403.